
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
	배포일시	2020. 6. 19(금) 총 11매(본문4)	
담당 부서	기획담당관	담당자	• 과장 김효정, 서기관 조민우, 사무관 최민석, 최준녕 • ☎ (044) 201-3205
	녹색건축과	담당자	• 과장 김유진, 사무관 김용수, 최대경, 이채훈 • ☎ (044) 201-3773
	주거복지 정책과	담당자	• 과장 김석기, 사무관 조은혜 • ☎ (044) 201-4506
보 도 일 시		2020년 6월 20일(토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6.19(금) 14:30 이후 보도 가능	

국토부-17개 시도, 기후변화 대응 그린뉴딜 협력 ‘맞손’

- 19일 시도 간담회서 그린뉴딜 건축물 분야 협력추진방안 논의
- 김현미 장관, “그린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지속가능 성장동력 될 것”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6월 19일(금)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의 대표 사업인 기존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의 성공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7개 시·도 부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.
-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, 특히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 변화 대응은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.
 - 특히, 건축물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%(15년 기준, 약 124.9백만 톤, 한국환경산업기술연구원)를 차지하고 있으며, 약 540만동에 달하는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은 에너지 성능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시급한 상황으로,
 -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의 주요 과제로 노후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.

□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건축물에 ①고단열 벽체, ②고성능 창호, ③환기시스템, ④고효율 설비, ⑤신재생·신기술 등을 적용하여 에너지 성능을 포함한 생활환경 전반을 개선하는 사업으로,

- 정부는 주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, 보건소, 의료기관, 공공임대주택 중 개선이 시급한 건축물에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우선 추진키로 하고, '20년 제3차 추경안에 2,352억 원을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.

< 그린 리모델링 관련 3차 추경안 주요 내용 >

- (공공건축물 : 1,992억 원) 노후 어린이집, 보건소, 의료기관 1,085동
- (공공임대주택 : 360억 원) 노후 영구·매입임대주택 1.03만호

* 다만, 추경안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, 사업 세부 내용은 변동 가능

- 사업이 본격화 되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함과 동시에 건축보수, 인테리어, 에너지 기자재 산업 등 관련 산업의 일자리도 연간 1만 개 이상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시·도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그린 리모델링의 사업 내용과 지자체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, 지자체의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하였다.

- 먼저, 국토부는 추경안이 확정되는 즉시 개선이 시급한 노후 어린이 집, 보건소, 의료시설 1.1천동에 대하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.

- 이를 위해 사업 대상은 선착순 방식으로 수시 접수하고, 접수되는 즉시 선정 심사를 진행한다. 또한, Pass/Fail 방식*을 도입하여 심사를 간소화한다.

* 각종 평가, 입찰, 사업 공모 시 심사를 간소화한 방식으로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대상을 선정(pass)하고 일정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는 방식을 뜻함

- 이에, 먼저 사업에 착수하는 지자체가 사업 대상 선정에 유리할 전망이다.
- 아울러, 지자체의 사업 대상 건축물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를 거쳐, 7월 중 그 정보를 지자체에 공유하고, LH 그린 리모델링 센터 내 사업문의 전담창구를 설치하는 등 지자체의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한다.

- 간담회에 참석한 명지대 이명주 교수는 그린 리모델링 필요성을 강조하고, 사업 우수사례로 서울 중구 중림 어린이집을 소개하였다.
 - '98년 준공된 중림 어린이집은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연간 에너지 소요량이 약 48% 감소하고,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도 개선(5→1 등급)되는 직접적 효과가 있었으며,
 - 구조 보강, 외관 개선 등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 뿐만 아니라, 지역 주민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< 서울 중구 중림 어린이집 개선 전·후 비교 >



- 대전시와 강원도는 관할 건축물에 대한 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하였다.
 - 먼저, 대전시는 '22년까지 총사업비 88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 내 어린이집 21개소와 보건소 5개소에 대한 개선 계획을 밝히며, 이를 통해 지역 내 200여 개 일자리 창출과 미세먼지 70% 감축,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하였다.

- 강원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·시·군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는 등 시·군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, 7월 중 지역 내 사업 대상을 확정, 8월 중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등 국토부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.
- 한편, 간담회에서는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 지자체의 주거복지 정책 기반 강화와 취약계층 주거상황 지원을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되었다.
 - 국토부는 <주거복지 로드맵 2.0(20.3월)>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'25년까지 모든 市(광역시 區)에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에는 국토부 공모 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.
 - 아울러,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위기 가구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하여 주거급여, 공공임대주택 긴급 공급, 월세자금 대출도 추진할 계획이다.
-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“국토부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3차 추경안이 확정되는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”면서,
 - “지자체도 조속히 추경을 편성하고, 사업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바란다”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준비를 당부하였다.
 - 또한, “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,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”고 덧붙였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최민석 사무관(☎ 044-201-320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**개요**

- (일시/장소) '20.6.19(금) 14:30~16:30 / 세종청사 대회의실(546호)
- (참석자) 장관님(주재), 17개 시·도 부단체장,
국토도시실장, 주택토지실장, 건축정책관, 대변인
주거복지정책과장, 건축안전과장, 기획담당관(사회)

□ **논의 사항**

- ①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
- ② 주거복지 관련 지자체 협조사항

* 주거복지센터 지자체 확산, 비주택 거주자 주거지원,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지원 등

□ **세부 진행일정**

시간	내용	비고
14:30 ~ 14:35('05)	개회 및 참석자 소개	
14:35 ~ 14:40('05)	그린 리모델링 영상 시청	
14:40 ~ 14:45('05)	인사말씀	장관님
14:45 ~ 14:55('10)	그린 리모델링 사업 필요성	명지대 이명주 교수
14:55 ~ 15:15('20)	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방안	건축정책관 (LH 도시건축사업단장)
15:15 ~ 15:30('15)	지자체 사업 추진 계획	대전, 강원
15:30 ~ 15:40('10)	주거복지 협조 사항	주거복지정책과장
15:40 ~ 16:25('45)	자유토론	
16:25 ~ 16:30('05)	마무리말씀	장관님

① (발제) 그린리모델링 사업 필요성(명지대학교 이명주 교수)

- (필요성) 그린뉴딜 및 그린리모델링은 '포스트 코로나' 시대를 대비하여 기후변화 대응,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공공주도로 추진 필요
- (우수사례) 중립 어린이집(서울 중구) 등 국내 사례를 통한 에너지 절감 효과, 실내공기질 개선, 일자리 창출 등 사업 기대효과 설명
- (기대효과) 미세먼지, 감염성 질환 등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, 공공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및 에너지 비용 절감 기대
 - 추가로, 소규모 인테리어, 에너지 진단, 정보통신, 설계 등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관련 산업 밸류체인 활성화

②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(건축정책관)

- (사업목적) 지난 10년간 건물부문 에너지소비량은 증가(16.8% ↑) 추세, 특히 에너지성능이 저하된 노후건축물(15년↑)이 전체의 74.5%
 - 환기성능이 열악한 노후 건축물은 실내공기오염 확산 가능성도 높아 특히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에 대한 시설개선 시급*
 - * 요양병원 등 밀폐되고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건축물 내 코로나 집단 발병('20.3)
- (사업내용)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(국공립 어린이집, 보건소, 의료시설)의 에너지성능, 실내공기질 등을 개선하는 사업비 지원
 - * 에너지성능(고성능 단열·창호·설비), 실내공기질(친환경 환기시스템), IT인프라(BEMS 등)
- 시급 건축물 1.1천동 대해 3차 추경으로 우선 추진(3.4천억)하고, '21년에 1.1천동에 대해 추가로 그린리모델링 추진(3.4천억)

- (사업목표) 최소 30% 에너지 절감, 미세먼지 75% 이상 저감, 태양광 패널 설치, 미관 개선 등 국민 체감효과가 높은 목표 설정
- (사업지원) 대상 전수조사, 심사절차 간소화 등 사업 순 과정에 걸친 지자체 기술·행정 지원을 통해 추경사업의 신속한 집행 추진
 - (전수조사) 사업대상 현장 전수조사*를 실시하여 대상건축물 현황 DB를 구축하고 지자체에 제공(7월)하여 신속한 추경편성 지원
 - * 50여 개 전문기관을 투입하여 1개월 내 조사완료
 - (지원시스템) 심사절차 간소화(pass/fail), 시도별 전문가 지원, 설계 대행 지원, 사업문의 전달창구 설치 등 지자체 지원시스템 구축
- (사업결과 제안) 어린이집, 보건소 등 17개 시·도 예상 사업대상 (각 1개소)을 선정, 사업 후 모습과 기대효과 제안
- ※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노후 공공임대주택에도 에너지 절감 공사 등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취약계층 주거여건 개선
 - * 목표물량: ('20년) 1만호 → ('21년) → 8.2만호 → ('22년) 9.3만호

③ 지자체 사업 추진계획(강원도 건설교통국장, 대전시 주택정책과장)

- (강원도) 한국판 뉴딜에 대응하는 그린뉴딜 등 강원형 뉴딜안을 마련하고, 관할 어린이집 등 사업대상 현황과 사업 추진계획 설명
 - 대상사업 선별 및 사업계획 수립(6월), 사업신청 및 확정(7월), 추경 예산 편성(8월), 공사 착공 및 준공(12월) 일정으로 사업추진 예정
- (대전시) 대전형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, '22년까지 사업비 지원 예정(88억원 규모)
 - 어린이집, 보건소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(20여 개소), 미세먼지 70% 감축, 일자리 200여 개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

여러분, 반갑습니다.

코로나19 대응과 지역 현안으로
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,
오늘 간담회에 함께 해주신
시·도 부단체장과
참석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세계적인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은
“기후 변화로 더 많은 팬데믹과
경제 위기를 목격하게 될 것”이라고 전망했습니다.

환경에 대한 각성은
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일깨워준
뼈아픈 교훈이기도 합니다.

대공황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
경제위기 또한 큰 숙제입니다.

‘성장’과 ‘환경’,
지금까지 대척점에 서 있던 이 두 가치는

팬데믹을 겪으면서 함께 공생해야 하는
시대적 화두가 되었습니다.

이에 정부는 코로나19의 위기로부터
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
대규모 국가프로젝트인
'한국판 뉴딜'을 선언하고,

디지털 뉴딜과 더불어 그린뉴딜을
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.

그 대표적 사업이 '그린리모델링'입니다.

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20%를 차지하는
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
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한편,

*2015년기준, 약124.9백만톤/전체약20%-한국환경산업기술연구원

건축 보수 사업과 인테리어,
친환경 에너지 산업 등의
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입니다.
정부는 먼저, 어린이·노약자 등 취약계층들이 이용하는
공공건축물부터 사업을 시작합니다.

3차 추경안이 확정되는 즉시

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.

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

노후 공공건축물을 소유·관리하고 있는

지자체의 추진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

정부는 지자체의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

LH 내 그린 리모델링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,

전국의 사업 대상 건축물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

세부 정보도 지자체와 공유할 예정입니다.

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,

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만큼

각 지자체에서도 조속히 추경을 편성하고

사업 대상 건축물 현황을 꼼꼼히 파악해,

향후 국토부의 지원 사업에

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.

더불어, 코로나19로 인해

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은

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과

지자체의 주거복지센터 운영 확대 등
보다 촘촘한 주거 안정망을 구축하는 일에도
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.

세계의 모범이 된 'K-방역'에 이어
우리의 '그린뉴딜'이
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
다시 한 번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를
부탁드립니다.

오늘의 간담회가
위기를 딛고 미래로 함께 나아가는
소중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.

감사합니다.